

관계: 경계와 경계 넘기*

- 팬데믹 시대에 다시 읽는 괴테의 『색채론』

주 일 선**

【목차】

1. 경계 - 분리인가, 접촉인가?
 2. 프리즘 - 경계의 발견
 3. ‘흐릿함’ 그리고 이중의 관계
 4. 대화로서의 관계 - 경계 넘기
 5. 결론을 대신하여 - 문화적 경계와 경계 넘기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1. 경계 - 분리인가, 접촉인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만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또렷하게 확인시켜준 예가 있을까? 우리는 가족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한 나라의 국민들이, 심지어 온 세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기가 이러한 초연결사회의 도래는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혁신이 다양한 형태의 초연결 사회를 구축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팬데믹이 드러내 보여준 글로벌 네트워크는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초를 둔 초연결 사회와는 다른 질적 특성을 지닌다. 팬데믹이 드러내는 네트워크는 역설적이게도 그 연결성의 강도만큼 강한,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한 단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lobpreis@yonsei.ac.kr)

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경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문화적 경멸과 적대감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문화갈등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2020년 1월~3월에 독일 체류 중 경험한 문화적 적대감과 경멸은 10년이 넘는 유학시절 기간 동안에 경험한 차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더 지난 지금도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전해지는 동양인들을 향해 가해지는 서양인들의 물리적 폭력 역시 필자가 경험한 문화적 적대감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공격적인 태도를 통해 문화적 경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난 경계의 바깥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폭력적으로 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태도는 다시 경계를 공고히 만들으로써 경계가 지닌 배타성을 보다 강화하는 악순환의 효과를 가져 온다.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경계의 문제는 문화적 갈등으로 표현되는 인간들 사이의 연결과 단절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경계를 들춰냈다. 이렇게 드러난 경계를 통해 “몸, 가정, 지역, 민족, 국가”로 명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여러 겹의 영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획정되었다(김재인 2020, 23). 나의 영토가 침범당한다고 여겨지면, 나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해진 경계를 통해 나의 다양한 영토의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정하려 한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경계는 인간들 사이의 경계만이 아니다. 보다 더 견고히 쌓아올리려는 인간들 사이의 경계와는 달리 이번엔 한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너뜨려진 경계가 드러난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 보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가 그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원인은 결국 인간”(최재천(외) 2020, 25)이라는 진단을 내놓는 것은 바로 인간에 의해 파괴된 경계, 이 파괴를 통해 침범당한 동물들의 영토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의 의도는, 인류 역사의 그 어느 시점보다도 전지구적 초연결이 이루어진 상황이 오늘의 팬데믹을 초래했으니 그 연결을 느슨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일방적으로 허문 것이 팬데믹의 한 원인일지 모르니 침범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경계를 높이 쌓아올리자는 것도 아니다. 문화적 적대와 경멸이 일반화되어가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영토를 넘어서는 연결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실존의 필연적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요청되는 일이지만, 그 요청이 곧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단절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적 경계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든, 모든 경계는 그 경계가 만일 어느 한 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확정된다면 그 경계는 일종의 폭력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 문화적 적대와 경멸은, 다양한 문화들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름의 틈새에 일방적으로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자신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자들의 폭력이다. 문화적 경멸과 적대가 심화되면 될수록 일방적이며 폭력적으로 설정된 경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 하며, 그 경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와 경계 넘기에 대해서도 경계의 양편에 존재하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두 실재의 관계에 대한 생산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어쩌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설정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경계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라투르 Bruno Latour가 2020년 6월 8일자 가디언지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우리의 외부에 있는 “자연의 복수”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의 팬데믹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생겨난 전 세계적 재앙”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비인간’¹⁾으로서 인간과 구분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몸을 비롯한 우리

1) 이 표현은 ANT가 현대의 의식구조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이중적 이분법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ANT가 말하는 이중의 이분법은 (1) 인간적인 것과 (기술과 같은) 비인간적인 것 사이의 분리, (2)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이 각각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작동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정화’ 작용, 그리고 자신의 외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인 ‘번역’ 사이의 분리를 의미한다. 바로 이 이중의 이분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ANT의 주요 관심사이다. ANT에 따르면, 현대가 시작되면서 인간과 기계를 확연히 구분하는 이분법이 관철되어 왔지만, 오히려 현대에 “자연과 사회 모두에 기술과 같은 비인간과 인간의 잡종적 동맹이 엄청난 속도로 번식했음”(홍성욱 2010b, 149)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현대의 역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주체와 객체의 경계, 즉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의 다양한 영토 안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경계가 서로를 향한 절대적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라투르는, “의학의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이러스가 사회를 완전히 다르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Latour 2020)고 말함으로써 ‘비인간’ 바이러스의 행위자 역할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향한 배타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는 그 경계를 통해 서로 구분되는 것이 만나는 지점이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경계의 본질적 특성을 분리와 단절에서 찾기보다는 경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접촉 가능성에 주목하려 한다. 앞서 언급한 팬데믹 상황이 제기하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다만 **경계는 배타적 태도와 적대적 갈등을 합리화해 주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 맺음의 필연성**을 말해주는 요소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목표이다. 이를 위해 괴테의 『색채론 Zur Farbenlehre』²⁾이 제기하는 경계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살펴보려 한다. 이 책에서 괴테는

무엇보다도 비인간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비인간적인 것이 어떻게 행위자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역설적 구조인 이중적 이분법에 대해서는 라투르 2009, 주일선 2014, 370-379, 홍성욱 2010b 참고. ANT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김환석 2010, 라투르 2010, 홍성욱 2010a 참고.

- 2) 괴테는 1824년 5월 2일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뉴턴의 이론이 지닌 오류”(FA 39, 116)를 바로 잡기 위한 필생의 과업으로 색채론을 기획했다고 말한다. 1810년에 출간된 『색채론』은 괴테의 저작 중에서 가장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였다. 1829년 2월 19일의 대화에서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시인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자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탁월한 시인들이 나와 함께 살아왔고, 나 이전에는 훨씬 더 탁월한 시인들이 살았으며, 나 이후에도 그런 시인들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오늘날 색채론이라는 난해한 과학 영역에서 내가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네. [...]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FA 39, 320) 색채론에 대한 괴테 자신의 이러한 자부심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색채론에 관한 평가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괴

색채의 생성과 인지에 관한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이론의 근저에는 일차적으로는 관찰되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나아가 관찰하는 자와 관찰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다. 이를 일반화한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의 고민의 단초를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프리즘 - 경계의 발견

색채 현상에 대해 괴테가 본격적으로 집중하게 된 계기는 이른바 ‘프리즘 착상 *Prismenaperçu*’이라고 불리는 1791년에 있었던 경험이었다. 괴테는 1810년 출판한 방대한 분량의 『색채론』을 마무리하면서 색에 관한 자신의 본격적인 연구를 촉발시켰던 이날의 일화를 소개한다. 괴테는 색채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몇 달 전에 자연사와 화학분야의 교수이자 궁정 고문관이었던 뷔트너 *Christian Wilhelm Büttner*에게 프리즘을 빌렸다. 하지만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프리즘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1791년 5월 17일³⁾ 괴테는 프리즘을 돌려보내기 위해 포장을 하려다가 눈앞에 갖다 뒀다. 그리고 “뉴턴의 이론을 기억하면서 *eingedenk der Newtonischen Theorie*” (FA 23/1, 976) 작업실 안의 흰색 벽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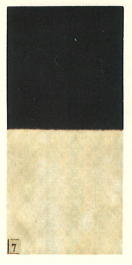
테 자신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824년 5월 2일 괴테는 에커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기야 오늘날의 세대는 이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전혀 모른다네. 하지만 미래에는, 내가 결코 나쁜 유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 분명해.”(FA 39, 116) 하지만 괴테의 이러한 기대는 쉽게 충족되지 않았다. 『색채론』에서 괴테가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뉴턴의 광학이론이라는 사실로 인해, 뉴턴의 이론이 학계에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만큼 괴테의 색채론은 점점 더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괴테의 색채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Bican/Wenzel 2012, 261-262, Schimma 2014, 433, Höpfner 1990, 40, Heisenberg 1941, Böhme 1980 등 참고.)

- 3) 이 날짜를 괴테가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 일이 있었던 시점을 1790년으로 볼 것인지 1791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비교적 최근까지 있었는데, 벤첼 *Manfred Wenzel*이 2010년에 발표한 글에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이 일화가 1791년 5월 17일이었음을 주장한 이후 학계에서는 그의 견해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Wenzel 2012b 참고.

그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프리즘을 통해 본 흰색의 벽은 여전히 그냥 흰색이었을 뿐 die durchs Prisma angeschaute weiße Wand nach wie vor weiß blieb”(FA 23/1, 976), 기대했던 무지개색의 스펙트럼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즘을 통해 흰색의 벽과 창틀의 경계부분을, 그리고 창문의 투명한 부분과 창문틀의 경계부분을 관찰한 그는 또다시 놀랐다. 아무런 색채의 변화가 없었던 흰색 벽과는 달리 “어두운 것과 접촉하는 곳에서만 다소간 분명한 색채가 나타났음 nur da, wo ein Dunkles dran stieß, sich eine mehr oder weniger entschiedene Farbe zeigte”(FA 23/1, 976)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괴테는 벽과 창틀의 경계부분에, 그리고 창문의 투명한 부분과 창문틀의 경계부분에 얇은 색채띠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괴테는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이날의 경험이 지닌 의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색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길게 숙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뉴턴의 이론은 틀렸어.’”(FA 23/1, 976, 인용자가 강조함)⁴⁾ 이 날 경험의 결론은 색채의 발생에 관한 뉴턴의 이론이 오류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프리즘을 통해 빛의 굴절이 이루어지고 색채는 곧 이 굴절에 의해 발생하는 분광현상이라는 뉴턴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괴테가 도출해낸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뉴턴의 이론이 틀렸다는 괴테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밝히려 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괴테가 내린 이러한 결론 자체보다 이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는 출발점이다. 그것은 바로 ‘경계의 중요성’에 대한 발견이다.

이날의 경험은 이후 색채에 관한 연구가 괴테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괴테는 바로 이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물리색의 발생과 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도출해내기 위해 바이마르 프라우엔플란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고 실험을 반복한다. 괴테는 1791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진행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같은 해에 출판한 『광학에 관한 기고, 제1편 Beiträge zur Optik. Erstes Stück』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4) “Es bedurfte keiner langen Überlegung, so erkannte ich, daß eine Grenze notwendig sei, um Farben hervorzubringen, und ich sprach wie durch einen Instinkt sogleich vor mich laut aus, daß die Newtonische Lehre falsch sei.”



<그림1>



<그림2>

피테는 일련번호가 매겨진 여러 장의 카드를 직접 제작해서 색채의 발생과 인지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구성된 카드를 만들고 (<그림1>의 왼쪽 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카드에 7번을 부여한다. 피테는 이 7번 카드로 세 가지 실험을 실시하는데,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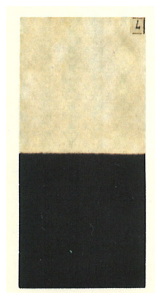
§ 47. [...] 7번 카드를 프리즘 앞으로 가져가는데, 검은색 부분이 위에, 흰색 부분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두 부분이 만나는 경계부위에서 붉은색 띠와 노란색 띠를 관찰하게 된다 [...]. 8번 카드가 이 채색된 가장자리를 그려 넣은 것이다.(FA 23/2, 30)⁵⁾

7번 카드를 프리즘을 통해 관찰하면 프리즘에 의해 발생하는 굴절현상 때문에 위에 있는 검은색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검은색의 아랫부분이 흰색 위에 겹쳐져 보이게 된다. 이 관찰을 통해 피테는 흰색을 배경으로 검은색이 겹쳐질 경우 <그림2>의 8번 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색이 겹쳐지는 경계부분에 붉은색과 노란색의 띠가 생겨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는 7번 카드를 <그림3>처럼 위와 아래를 바꾸고 프리즘으로 관찰한다. 이것이 두 번째 실험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리

5) “§ 47. [...] Wir nehmen [...] die Karte No. 7 vor das Prisma, und zwar dergestalt, daß der schwarze Teil oben, der weiße Teil unten befindlich ist; und wir werden sogleich an dem Rande zwischen beiden einen roten und gelben Streifen erblicken [...]. Die Karte No. 8 zeigt uns diesen farbigen Rand gemalt.”

즘 때문에 위에 있는 흰색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흰색의 아랫부분이 검은색 위에 겹쳐져 보인다. 그 결과를 그린 것이 <그림4>의 9번 카드이다. 이 실험에 대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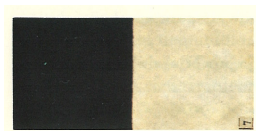
<그림3>



<그림4>

§ 48. 우리가 7번 카드를 거꾸로 놓아서 검은색이 아래에 흰색이 위에 위치하도록 하면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을 관찰하게 된다. 이 순간 프리즘을 통해 이전에 우리에게 노랑고 붉게 나타났던 경계부분에서 9번 카드가 보여 주듯이 푸른색 띠와 보라색 띠를 관찰하게 된다.(FA 23/2, 31)⁶⁾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7번 카드를 <그림5>처럼 옆으로 90도 회전시킨 상태로 관찰한다.



<그림5>

§ 49. 7번 카드를 검은색과 흰색 사이의 경계부분이 수직으로 세워진 채 프리즘으로 관찰하면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 관찰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6) “§ 48. Höchst merkwürdig ist es nun, wenn wir die Karte No.7 umkehren, dergestalt, daß das Schwarze unten und das Weiße sich oben befindet: in diesem Augenblicke zeigt uns das Prisma an dem Rande, der uns vorhin gelb und rot erschien, einen blau- und violetten Streifen, wie die Karte No. 9 denselben zeigt.”

는 이 경계부분에 아무런 색이 생겨나지 않음을 관찰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아주精美的 움직임을 통해 이 경계부분을 이리저리로 기울여서 검은색과 흰색이 한번은 위에, 한번은 아래에 위치하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한번은 붉은색을, 한번은 푸른색을 보게 된다.(FA 23/2, 31)⁷⁾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는 프리즘을 통해 검은색과 흰색이 각각 겹쳐질 때 그 경계부분에서 색채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반면, 세 번째 실험에서는 이 경계부분이 수직으로 세워져서 검은색과 흰색이 프리즘을 통해 보더라도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색채의 발생을 관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실험에서도 수직으로 세워진 경계부분을 기울여서 프리즘 효과로 검은색과 흰색이 겹쳐지면 색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앞의 두 실험의 결과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괴테는 『광학에 관한 기고. 제1편』에서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 54. 프리즘은 빛과 그림자가 수평으로 상호교체하는 곳에서만 색채를 보여준다. [...] 색채가 있는 대상들이 서로 겹쳐지는 경계부분에서 프리즘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의 법칙에 따라, 즉 다른 색채 위에 겹쳐져 있는 색채가 [아래에 있는 색채보다] 더 어둡거나 더 밝은 경우에만 색채를 보여준다.(FA 23/2, 32)⁸⁾

괴테의 이러한 결론에서 필자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다

7) “§ 49. Besonders auffallend ist es, wenn wir die Karte No. 7 dergestalt vor das Prisma bringen, daß der Rand zwischen Schwarz und Weiß vertikal vor uns steht. Wir werden denselben alsdann ungefärbt erblicken; wir dürfen aber nur mit der geringsten Bewegung ihn hin und wieder neigen, so werden wir bald Rot, bald Blau in dem Augenblicke sehen, wenn das Schwarze oder das Weiße bald oben, bald unten sich befindet.”

8) “§ 54. Das Prisma zeigt nur Farben da, wo Licht und Schatten horizontal wechseln; [...] daß an den Rändern, wo farbige Gegenstände an einander stoßen, das Prisma gleichfalls die Farben nach dem bisherigen Gesetze zeigt, nämlich nur in so fern, als eine Farbe, die über der andern steht, dunkler oder heller ist.”

름'에 대한 언급이다. 피테는 이 다름을 빛과 그림자라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표현한다. 경계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경계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것이 구분됨을 의미하며, 동일한 밝기의 같은 색채만 존재하는 곳에는 경계가 없다. 경계는 빛과 그림자, 보다 더 밝음과 보다 더 어두움을 구분해주는 지점이며, 따라서 경계는 서로 다름의 증거다.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 경계가 서로 다름을 입증해주는 증거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색채발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프리즘과 직각으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프리즘에 의한 굴절로 인해 발생하는 빛과 그림자가 서로 겹쳐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빛과 그림자는 경계에 의해 구분되어 있을 뿐, 경계를 넘어서지 않은 것이다. 색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밝기를 지닌 색채들 사이의 경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계가 존재한다고 모두 색채발생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프리즘에 의한 굴절로 인해) 빛과 그림자의 경계 넘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색채발생이 가능하다. 물론 피테가 직접 경계 넘기의 중요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밝기를 가진 색채의 존재와 그 색채들의 겹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계 넘기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서 피테는 색채 발생을 위한 경계(와 경계 넘기)가 지닌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여겼다. 피테가 확신하는 것처럼 색채 발생을 위해 경계가 지닌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피테의 이 실험에서는 그 경계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프리즘 착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프리즘이다. 색채발생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굴절을 통해 빛과 그림자의 경계 넘기를 가능하게 하는 프리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학에 관한 기고. 제1편』을 집필하던 시기의 피테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색채 발생의 과정에서 프리즘이라는 매체가 지닌 의미는 아직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3. ‘흐릿함’ 그리고 이중의 관계

색채 발생과 인지의 과정에서 프리즘이 지니는 의미는 『색채론』에 제시되어 있는 “물리색 Physische Farben”(FA 23/1, 70)에 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원리편 Didaktischer Teil”⁹⁾의 제2부는 <물리색>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괴테는 물리색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36. 물리색이란 그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적 매질을 필요로 하는 색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매질 자체는 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떤 것은 투명하고 어떤 것은 흐릿하지만 빛을 통과시키며, 또 다른 것은 완전히 불투명할 수도 있다.(FA 23/1, 70)¹⁰⁾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모든 물리색에 공통적이다. 그런데 매질의 역할에 따라 물리색의 발생과 인지는 두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 “물리색은 색이 없는 대상들을 통해서 눈 안에서 생겨난다. [Physische] Farben [werden] *im Auge* durch *farblose Gegenstände* erregt”(FA 23/1, 70, 인용자가 강조함). 이와는 달리 두 번째는 “물리색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우리의 외부에** 생겨나 있는 경우 wenn sie [physische Farben] schon auf irgend eine Weise *außer uns* erzeugt sind”(FA 23/1, 70, 인용자가 강조함)다. 이 경우에는 물리색을 “우리의 외부에 [이미 생성되어]

9) 잘 알려져 있듯이 괴테는 『색채론』 <원리편>의 제1부에서는 “생리색”을, 제2부에서는 “물리색”을, 그리고 제3부에서는 “화학색”을 다룬다. 괴테의 견해에 따르면, 생리색은 “색채가 눈에 속해 있고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기인하는” 경우를, 물리색은 “우리가 색이 없는 매질에서 인지하거나 색이 없는 매질의 도움으로 색을 인지하는” 경우를, 마지막으로 화학색은 “색채가 대상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FA 23/1, 26) 경우를 가리킨다. 『색채론』의 <원리편>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민음사에서 출판한 장희창 외의 번역(괴테 2018, 25-306)을 참고하였고, 필요한 경우 인용자가 수정하였다.

10) “136. Physische Farben nennen wir diejenigen, zu deren Hervorbringung gewisse materielle Mittel nötig sind, welche aber selbst keine Farbe haben, und teils durchsichtig, teils trüb und durchscheinend, und teils völlig undurchsichtig sein können.”

있는 현상 *die Erscheinung außer uns*”(FA 23/1, 70)으로 인지하게 된다. 첫 번째 경우가 “색이 없는 매질을 **통해** *durch* deren [der farblosen Mittel] Beihülfe” 색을 인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7번 카드 실험에서 프리즘을 통해 색채의 발생을 인지한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는 “색이 없는 매질**에서** *an* farblosen Mitteln”(FA 23/1, 26, 인용자가 강조함) 색을 인지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미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물리색의 인지를 의미한다. 이 두 번째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하게 될 것이다.

괴테는 매질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물리색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물리색의 인지 경험을 <원리편>의 제1부에서 서술한 생리색과 대비시킨다. “생리색은 때로는 전적으로, 때로는 대부분 눈에 속하기 때문에 주체에 속한다.”(FA 23/1, 31)¹¹⁾ 색채가 **주체에** 속한다는 말은 그 색의 생성이 관찰자인 주체의 눈 안에서 눈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는 관찰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색채를 인지한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다. 괴테는 이렇게 말한다. “생리색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눈이 활동적이었고, 우리는 생리색이라는 현상을 단지 우리 안에서만 그려낼 수 있었을 뿐이며, 우리 외부에서는 그려낼 수 없었다.”(FA 23/1, 70)¹²⁾ 그런데 생리색을 인지할 때와는 달리 “물리색을 인지할 때, 눈은 스스로 작용하지 않고, 빛은 단 한 번도 눈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관찰되지 않는다.”(FA 23/1, 71)¹³⁾ 왜냐하면 물리색은 반드시 “색이 없는 매질 *farblose Mittel*”(FA 23/1, 71)을 통해서만 생성되기 때문이다.

괴테는 물리색의 종류를 색채 발생의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다시 구분하는데,¹⁴⁾ 앞장에서 서술했던 7번 카드 실험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색채 현상은 이중 가장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굴절색 *Dioptrische Farben*”(FA23/1, 72)에

11) “sie [physiologische Farben] dem Subjekt, weil sie dem Auge, teils völlig, teils größtens zugehören”.

12) “bei jenen [physiologischen Farben] vorzüglich das Auge wirksam war, und wir die Phänomene derselben nur in uns, nicht aber außer uns darzustellen vermochten.”

13) “wobei wir die physischen Farben gewahr werden, wird das Auge nicht für sich als wirkend, das Licht niemals in unmittelbarem Bezug auf das Auge betrachtet”

14) 괴테는 『색채론』의 140번 항목에서 물리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색채를 언급하는데,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 등이 있다.

해당한다.

143. 굴절색은 그것이 생겨나려면 색이 없는 매질이 필요하며, 빛과 암흑이 이 매질을 관통하여 눈이나 맞은편에 있는 표면에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생겨난다. 따라서 매질은 투명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빛을 통과시키는 것이어야 한다.(FA 23/1, 72)¹⁵⁾

7번 카드 실험에서 사용된 프리즘도 바로 여기에서 언급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매질’에 해당하며, 빛과 그림자가 겹쳐지는 경계 부분이 프리즘이라는 매질을 관통해 눈에 작용함으로써 인지된 색채가 바로 굴절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색채론』에서 괴테는 (이전의 『광학에 관한 기고. 제1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자연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물리색을 다룬다. 괴테는 우선 “대기색 die atmosphärischen Farben”(FA 23/1, 74)을 분석한다.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바로 ‘대기’가 흐릿함이라는 매질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150. 태양의 빛처럼 최고도의 에너지를 지닌 빛은 [...] 눈이 무시게 하며 색이 없다. [...] 하지만 이러한 빛은 단지 조금이라도 흐릿한 매질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러한 매질의 흐릿함의 정도가 증가하거나 그 매질의 깊이가 증대하면, 우리는 그 빛이 점점 주홍색을 띠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주홍색은 결국 홍옥색으로까지 상승한다.(FA 23/1, 73-74)¹⁶⁾

15) “143. Man nennt dioptrische Farben diejenigen, zu deren Entstehung ein farbloses Mittel gefordert wird, dergestalt daß Licht und Finsternis hindurchwirken, entweder aufs Auge, oder auf entgegenstehende Flächen. Es wird also gefordert, daß das Mittel durchsichtig oder wengigstens bis auf einen gewissen Grad durchscheinend sei.”

16) “150. Das höchstenergische Licht, wie das der Sonne, [...] ist blendend und farblos. [...] Dieses Licht aber durch ein auch nur wenig trübes Mittel gesehen, erscheint uns gelb. Nimmt die Trübe eines solchen Mittels zu, oder wird seine Tiefe vermehrt, so sehen wir das Licht nach und nach eine gelbrote Farbe annehmen, die sich endlich bis zum Rubinrot steigert.”

괴테는 “아침노을과 저녁노을이 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FA 23/1, 75)¹⁷⁾고 말한다. 해가 뜨는/지는 곳은 빛이 있기 때문에 밝고, 관찰자가 서 있는 곳은 해가 있는 곳에 비하면 당연히 어둡다. 그리고 대기라는 매질은 밝음과 어둠 사이에 있다. 어둠 쪽에 서 있는 관찰자는 뒤쪽에 있는 밝음을 흐릿함의 매질을 통해서 본다. 이는 첫 번째 7번 카드 실험과 유사하다. 위쪽에 위치한 검은색이 프리즘을 통해 아래쪽으로 이동해 흰색의 위로 겹쳐지고, 바로 겹쳐진 그 부분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노란색과 붉은색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기 또는 프리즘이라는 흐릿함이 위치한 곳은 다르지만, 밝음을 배경으로 어둠이 위에 겹쳐진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또한 경계를 넘어 겹쳐지는 부분을 흐릿함이라는 매질의 도움으로 관찰한다는 사실도 동일하다.

이 원리는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 인용문에 바로 이어지는 151번 항목에 따르면, 밝은 쪽에서 “흐릿한 매질을 통해 암흑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푸른색이 나타난다.”(FA 23/1, 74)¹⁸⁾ 이 현상은 자연스럽게 7번 카드로 실행한 두 번째 실험을 연상시킨다. 위쪽에 위치한 흰색이 프리즘을 통해 아래쪽으로 이동해 검은색의 위로 겹쳐지고, 바로 겹쳐진 그 부분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푸른색과 보라색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⁹⁾ 물리색의 발생과 인지에 관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괴테는 『색채론』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175. [...] 우리가 이제까지 서술한 것이 바로 **원현상**이다. 우리는 한 편에서는 빛, 밝음을, 다른 편에서는 암흑, 어둠을 본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흐릿함**을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들로부터 계획된 매개의 도움으로 마찬가지로 대립적인 색채들이 생겨난다.(FA 23/1, 81, 인용자가 강조함)²⁰⁾

17) “Morgen- und Abendröte entsteht aus derselben Ursache.”

18) “Wird hingegen durch ein trübes, von einem darauffallenden Lichte erleuchtetes Mittel die Finsternis gesehen, so erscheint uns eine blaue Farbe.”

19)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현상을 괴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55. 무한한 공간의 암흑을 햇빛을 받는 대기 중의 안개를 통해 바라보면 푸른색이 나타난다.”(FA 23/1, 75) 괴테는 바닷물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한다(164번 항목 참고).

이 결론에서 우리는 두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현상’과 ‘흐릿함’이다. 우선 흐릿함은 대기나 프리즘과 같이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매질을 모두 가리킨다. 흐릿한 매질이 대기의 경우처럼 밝음과 어둠 사이에 위치하든, 7번 카드 실험의 경우처럼 밝음과 어둠의 경계와 그 경계를 관찰하는 시각 사이에 위치하든 기본적으로 흐릿함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피테는 물리색의 발생과 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흐릿한 매질에 관한 이론 *die Lehre von den trüben Mitteln*”(FA 23/1, 80)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물리색의 발생과 인지를 설명하는 핵심원리인 흐릿함에 관한 이론은 ‘원현상’이라는 것이다.

원현상은 피테의 자연연구의 중심 개념이다. 자연연구에서 피테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관심사는 직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원현상을 인식해내는 것”(Wenzel 2012d, 680)이다. 위에 인용한 『색채론』 175번 항목 바로 앞에서 원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단지 “일반적인 경험적 부류 *allgemeine empirische Rubriken*”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사례들은 다시 “학문적 부류 *wissenschaftliche Rubriken*”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때 ‘학문적 부류’로 분류함으로써 “현상하는 것이 [현상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어떤 불가결한 조건들 *gewisse unerläßliche Bedingungen des Erscheinenden*”을 보다 더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FA 23/1, 80-81). 이제 원현상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규칙들과 법칙들을 점차로 따르게 되는데, 하지만 이 규칙들과 법칙들은 **말과 가설을 통해 지성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닌 **현상들을 통해 직관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 현상들을 **원현상**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현상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것들보다 상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하지만 그것들은 반대로, 바로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적 부류로부터 시작해서 학문적 부류를 거

20) “175. [...] Ein solches *Urphänomen* ist dasjenige, das wir bisher dargestellt haben. Wir sehen auf der einen Seite das Licht, das Helle, auf der andern die Finsternis, das Dunkle, wir bringen *die Trübe* zwischen beide, und aus diesen Gegensätzen, mit Hülfe gedachter Vermittlung, entwickeln sich, gleichfalls in einem Gegensatz, die Farben”.

쳐 원현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왔듯이, 사람들이 이 원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적 경험의 가장 평범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내려가기에 완벽하게 적합하기 때문이다.(FA 23/1, 81, 인용자가 강조함)²¹⁾

원현상을 통해 ‘직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보다 높은 수준의 규칙들과 법칙들’은 인간이 자연연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것이다. 인간이 원현상의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괴테에게 원현상은 인간이 “자연연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한계”(Wenzel 2012d, 680)를 의미한다.²²⁾ 그리고 원현상은 그 개념 자체가 의미하듯이 이념이 아니라 실재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현상은 항상 인간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대상 세계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가장 평범한 일상적 경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원현상은 “인간의 인식이 더 이상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경외감을 지닌 존중을 요구하는 영역”(Wenzel 2012d, 680)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 원현상은 자연연구를 통해 획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단지 자연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괴테는 1829년 2월 13일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원현상의 뒤에 숨겨져 있는 신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는 그가 원현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지성은 자연에게 올라가 도달할 수 없다. 원현상들 속에서, 즉 **물리적인 원**

21) “Von nun an fügt sich alles nach und nach unter höhere Regeln und Gesetze, die sich aber nicht *durch Worte und Hypothesen dem Verstande*, sondern gleichfalls *durch Phänomene dem Anschauen* offenbaren. Wir nennen sie *Urphänomene*, weil nichts in der Erscheinung über ihnen liegt, sie aber dagegen völlig geeignet sind, daß man stufenweise, wie wir vorhin hinaufgestiegen, von ihnen herab bis zu dem gemeinsten Falle der täglichen Erfahrung niedersteigen kann.”

22) 괴테는 1829년 2월 18일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한계로서의 원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칼스바트의 유리잔에서 관찰했던 밝음과 어둠, 그리고 흐릿함의 작용이 불러일으킨] 놀라움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다. [...] 그 원현상이 인간을 놀라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보다 더 고귀한 것이 인간에 허락될 수 없고, 인간은 보다 더 넓은 것을 그 뒤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여기가 한계다.**”(FA 39, 311, 인용자가 강조함)

현상들 속에서는 **도덕적인** 원현상들 속에서는, 자신을 계시하는 **하느님**, 원현상들 뒤에 머물러 있는 하느님, 그리고 원현상들이 시작되는 근원인 하느님, **그 하느님에 닿기 위해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가장 높은 이성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FA 39, 308, 인용자가 강조함)²³⁾

원현상은 자연의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현상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다. 원현상은 자연연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너머에 있는 보편적 근원자를 가리킨다. 『색채론』에서 괴테는 밝음과 어둠, 그리고 흐릿함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이해된 원현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원현상으로 이해된 흐릿함은 매우 중요한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단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일반에 대한 보다 보편적 이해의 틀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흐릿함이라는 원현상에 담겨 있는 보편적 의미는 무엇일까? 『색채론』의 181번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1. 전체 감각 세계에서 모든 것은 **대상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달려 있다. 하지만 특히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인간이 그 밖의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지니는 관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세계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래서 인간은 주체로서 객체에 마주 선다.(FA 23/1, 83, 인용자가 강조함)²⁴⁾

색채의 발생과 인지에 관한 실험을 통해 괴테는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관계는 이중적인 것인데, 첫 번째 관계는 ‘대상들 사이의 상호관계’다. 예를 들면 밝음과 어둠의 관계가 그것이다. 프리즘을 통해 발견

23) “Der Verstand reicht zu ihr [der Natur] nicht hinauf, der Mensch muß fähig sein, sich zur höchsten Vernunft erheben zu können, *um an die Gottheit zu rühren*, die sich in Urphänomenen, *physischen* wie *sittlichen*, offenbart, hinter denen sie sich hält und die von ihr ausgehen.”

24) “181. In der ganzen sinnlichen Welt kommt alles überhaupt auf *das Verhältnis der Gegenstände untereinander* an, vorzüglich aber auf *das Verhältnis des bedeutendsten irdischen Gegenstandes, des Menschen, zu den übrigen*. Hierdurch trennt sich die Welt in zwei Teile, und der mensch stellt sich als ein Subjekt dem Objekt entgegen.”

한 ‘경계’는 바로 대상들을 서로 구분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대상들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대상들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다. 『색채론』에서도 밝음과 어둠의 관계는 역시 중요하다. 아침노을과 저녁노을, 푸른 하늘 등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모두 동일하게 밝음과 어둠이라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가 놓여있다. 밝음과 어둠의 관계가 없다면 색채의 발생도 불가능하기에 괴테는 이 관계의 발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괴테가 강조한 대상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대상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이중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흐릿함이다. 흐릿함이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경우는 대기나 바닷물에서 찾을 수 있고, 대상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경우는 프리즘에 찾을 수 있다. 우선 대기나 바닷물의 경우에는 흐릿함이 바로 밝음과 어둠의 사이에, 즉 대상들 사이에 위치한다. 이때 인간은 흐릿함을 통해 관계 맺어진 밝음과 어둠을 관찰함으로 색채의 발생을 인지하게 된다. 프리즘의 경우에는 흐릿함이 대상들과 인간 사이에 위치한다. 인간이 밝음과 어둠의 경계라는 대상을 흐릿함을 통해 관찰하게 되고, 이는 흐릿함이 인간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괴테가 프리즘을 눈 앞에 대고 밝음과 어둠의 경계를 관찰하는 것을 『색채론』 194번 항목에서 “**주관적 실험들** *subjektive Versuche*”(FA 23/1, 86)라고 명명하는 것도 흐릿함이 맺어주는 인간과 대상들 사이의 관계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어지는 182번 항목에서 괴테는 흐릿함을 통해 표현되는 이중의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색채론』의 주요과제임을 밝힌다.

182. 여기에서도 역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은 **관계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통찰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그 감각이 건강한 한, 외적인 관계들에 관하여 가장 진실하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다. 우리의 감각은, 그 감각이 실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도처에서 참된 연관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그려낸다는 사실 말이다.(FA 23/1, 83)²⁵⁾

25) “182. Immer bleibt es aber auch hier die Hauptsache, daß *die Beziehungen* wahrhaft *eingesehen* werden. Da nun unsre Sinne, in so fern sie gesund sind, die äußern Beziehungen am wahrhaftesten aussprechen; so können wir

4. 대화로서의 관계 - 경계 넘기

위에 인용한 181번 항목에서 괴테는 흐릿함을 통해 맺어지는 이중의 관계를 서술한 후에, 이 세계는 주체와 객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주체와 객체가 마주서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괴테가 『색채론』에서 주체와 객체에 대한 당대의 주도적 담론들이 제기했던 이분법적 사유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괴테가 『색채론』을 집필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분명히 주장했던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 마지막 결론을 서술하기 전에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괴테의 견해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관계에 관한 괴테의 구상이 지닌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1792년 전반기에 집필된 것으로 알려진 「객체와 주체의 중개자로서의 실험 Der Versuch als Vermittler von Objekt und Subjekt」에서 괴테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관하여 다룬다. 이 글이 집필된 시기가 바로 7번 카드로 실험을 진행하던 시기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 글의 목적이 바로 그의 “색채론이 제기하는 인식론적 문제들”(FA 25, 878)을 규명하고자 하는 관심과 밀접히 연관됨을 암시한다. 괴테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그 대상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관찰한다.”(FA 25, 26)²⁶⁾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것은 그 대상을 주변의 관계로부터 떼어내서 그 대상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괴테는 한 대상에 대한 관찰은 동시에 관찰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지각하자마자, 이 대상들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관찰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하다.”(FA 25, 26)²⁷⁾ 이중적인

uns überzeugen, daß sie überall, wo sie dem Wirklichen zu widersprechen scheinen, das wahre Verhältnis desto sicherer bezeichnen.”

26) “wir [betrachten] einen Gegenstand in Beziehung auf sich selbst und in Verhältnis mit andern.”

27) “Sobald der Mensch die Gegenstände um sich her gewahr wird, betrachtet er

관계, 즉 대상들이 다른 대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이 관찰되는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는 인식의 과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 조건인 것이다.²⁸⁾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괴테의 이러한 견해는 이 세계가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뚜렷한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 주체와 객체가 이 세계의 ‘두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두 부분을 나누는 경계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떼어놓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음의 증거일 수 있는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이러한 관계는 『색채론』의 제1부 <생리색>에서 다루어지는 ‘잔상 Nachbilder’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잔상은 하나의 대상, 예를 들면 해를 관찰한 후에 눈을 감거나 흰색으로 된 배경을 보면 원래 관찰했던 해 모양의 검은색 원이 잠깐 동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색채가 있는 대상을 관찰할 경우에는 원래 관찰했던 대상이 지닌 색의 보색관계에 있는 색채를 지닌 형태가 보이기도 한다. 이때 우리가 보게 되는 색채는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외부의 대상이 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결과로 눈이 만들어낸 색채이다. 이 현상을 괴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8. [...]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망막의 위대한 활발함**을 목격했다고 믿는다. [...] 눈에 어둠이 제공되면 눈은 밝음을 요구한다. 눈앞으로 밝음을 가져다오면, 눈은 어둠을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눈은 **자신의 활동성**을 보여준다. 즉 객체와 대립되는 그 무엇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냄으로써 그 객체를 포착하는 **자신의 권리**를 보여준다.(FA 23/1, 41, 인용자가 강조함)²⁹⁾

잔상은 눈이 자신의 주체적 활동성을 입증하는 예로 언급된다. 외부세계가

sie in Bezug auf sich selbst, und mit Recht.”

28) 괴테의 이 글에서 제기되는 존재론적 조건이자 인식론적 조건으로 이해된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일선 2012, 209-215 참고.

29) “38. [...] Wir glauben hier abermals *die große Regsamkeit der Netzhaut* zu bemerken [...]. Wie dem Auge das Dunkle geboten wird, so fordert es das Helle; es fordert Dunkel, wenn man ihm Hell entgegenbringt und zeigt eben dadurch *seine Lebendigkeit, sein Recht* das Objekt zu fassen, indem es etwas, das dem Objekt entgegengesetzt ist, aus sich selbst hervorbringt.”

준 자극에 대해서 눈은 그 외부세계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반대되는 것을 산출해 밖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괴테는 이를 “들숨 *das Einatmen*”과 “날숨 *das Ausatmen*”, “수축 *Systole*”과 “팽창 *Diastole*”의 현상이 보여주는 관계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영원한 공식 *die ewige Formel des Lebens*”(FA 23/1, 41)이라고 명명한다. 생리색인 잔상은 물리색의 ‘호릿함’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관찰 대상과 관찰 주체가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관찰하는 주체만이 행위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 역시 행위자로 기능하고 관찰 주체가 오히려 관찰 대상의 행위에 반응함을 보여준다. 관찰 주체의 눈이 ‘객체와 대립되는 그 무엇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 눈에 의한 주체적 활동이지만, 동시에 이 ‘주체적 활동성’은 관찰 대상의 행위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괴테의 고유성을 잘 보여준다. 관찰 주체와 관찰 대상이 모두 행위의 주체이자 동시에 행위의 객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괴테의 이러한 이해방식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세계의 두 부분이 각각 자신만의 역할영역 안에만 머물도록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색채론』의 <원리편>에서 세 종류의 색에 대해서 서술하기 전인 <서론 Einleitung>에서 괴테가 “눈은 자신의 존재를 빛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Das Auge hat sein Dasein dem Licht zu danken*”(FA 23/1, 24)라는 주장을 제시한 것도 바로 주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눈과 빛은 각각 주체와 객체로만 기능하도록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빛과 눈의 **직접적 친화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 *Jene unmittelbare Verwandtschaft des Lichtes und des Auges wird niemand leugnen*”(FA 23/1, 24, 인용자가 강조함)이라고 괴테는 생각한다. 물론 이런 주장이 주체와 객체는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괴테는 “이 둘[빛과 눈]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이자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 *aber sich beide zugleich als eins und dasselbe zu denken, hat mehr Schwierigkeit*”(FA 23/1, 24)이라고 말한다. 괴테는 객체와 마주서는 인간이라는 주체를 분명히 전제하고 있지만, 인간이

라는 주체가 자신을 항상 주체로만 주장하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을 항상 객체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괴테가 색채론 연구에 집중했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는 자연과학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다. 자연과학의 발전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유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임을 입증한 것으로 보였다. 자연과학적 연구 대상을 단지 객체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연구하는 주체를 향하여 행동하는 일종의 행위자 역할을 이 객체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괴테의 생각은 당대의 주도적 흐름과 달랐다. 일흔 살이 넘은 괴테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자아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일반화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인간은 세계를 아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만 세계를 지각하고, 자기 자신을 세계 속에서만 지각한다. **하나하나의 새로운 대상이 [...] 우리들 내면에 새로운 기관이 생겨나게 한다.**(FA 24, 595-596, 인용자가 강조함)³⁰⁾

이 시기의 주된 담론이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인간의 주체적 능력을 강조했음을 생각하면, 앞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던 외부세계의 객체가 이성적 주체 내면에 새로운 기관을 생겨나게 한다는 주장은 낯설다. 괴테가 주장하듯이 주체의 인식행위가 하나하나의 새로운 대상이 형성시켜준 새로운 기관에 의해 가능해진다면, 이른바 인식의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객체의 역할만 배분하는 것은 타당할 수 없다. 괴테가 『색채론』 전체의 첫 시작부분인 <머리말 Vorwort>에서 “색채는 빛의 행동, 즉 빛의 행동과 견더냄 Die Farben sind Taten des Lichts, Taten und Leiden”(FA 23/1, 12)이라는 명제를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빛은 도구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만들어진 실험 조건 속에서 인간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찰될 뿐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눈을 향해 행동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빛과 눈이 상호작용

30) “Der Mensch kennt nur sich selbst, insofern er die Welt kennt, die er nur in sich und sich nur ihr gewahr wird. Jeder neue Gegenstand [...] schließt ein neues Organ in uns auf.” 괴테의 이 글에 대한 아래의 설명은 주일선 2014, 368-370 참고.

한 결과가 바로 색채이다. ‘행동’을 다시 ‘행동과 견더냄’으로 구분한 것은 관찰을 통해 인식을 얻어내려는 주체나 그 관찰의 대상인 객체나 모두 (능동적 의미의) 행동과 (수동적 의미의) 견더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괴테의 이러한 이해에 근거한다면,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 우선 괴테가 추구하는 방식은 “**독백**”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자연과학연구와는 다르다. 독백의 형식을 취하는 과학자는 “자연을 하나의 **아무런 말이 없는** 정체성으로 환원”(Prigogine/Stengers 1981, V, 인용자가 강조함)할 뿐이다. 이 경우에 산출되는 연구결과는 아무런 말이 없는 자연을 일방적으로 관찰한 후 기록한 과학자의 독백이다. 괴테가 추구하는 방식은 ‘**심문**’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연구와도 다르다. 과학자가 취조실의 조사관처럼 “실험을 통해 질문을 던지면 자연은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답한다는 확신에 근거”(Prigogine/Stengers 1981, 14)하여 인간은 일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자연은 이에 답하는 방식의 심문은 괴테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다. 이런 연구방식은 자연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독백’처럼 수행되는 자연과학 연구와는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방법 역시 인간이 묻지 않는 한 자연도 말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 괴테가 추구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넘는 방식은 “자연과의 대화”³¹⁾라고 할 수 있다. **대화**는 독백이나 심문과는 다르다. 자연과학자라는 인간 주체가 일방적으로 자연이라는 객체를 규정하지 않는다. 괴테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하나하나의 새로운 대상’이 ‘인간의 내면에 새로운 기관’이 생겨나게 하듯이, 주체도 객체와의 대화를 통해 항상 비로소 생성되어 간다. 괴테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넘는 방식으로서 제시하는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존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대화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것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닫힌 결말을 지향하는 모든 방식과 다르다. 괴테가 흐릿함이라는 원현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관계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이 대화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화의 방식에 근거하여 경계를 넘을

31) 이 표현은 프리고진과 스텐저스가 집필한 책(Prigogine/Stengers 1981)의 제목.

때 비로소 그 경계가 단절과 분리가 아닌 관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문화적 경계와 경계 넘기

색채의 발생과 인지에서 관찰되는 ‘밝음과 어둠, 그리고 흐릿함’이라는 현상에 대한 괴테의 분석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대화**라는 방식으로 서로 넘어설 수 있는 **관계**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 관계를 **원현상**으로 명명한 것은 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계 넘기**가 보편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원리가 인간들 사이의 경계, 즉 문화적 경계에는 적용될 수 있을까?

앞서 인용한 1829년 2월 13일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괴테는 원현상이 지닌 ‘물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원현상이 보편적 근원자를 가리키는 직관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원현상이 이처럼 보편적 근원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원현상이 담고 있는 원리는 ‘도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색채의 발생과 인지 과정에서 관찰된 경계와 경계 넘기라는 원현상은 보다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인용된 1829년 2월 13일 대화에 바로 이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하느님은 바로 **살아 있는 것**에서만 작용한다. 하지만 죽어 있는 것에서는 아니다. 하느님은 **형성해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것과 굳어 있는 것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성도 신적인 것을 향하는 자신의 경향성 속에서 오직 **형성해가는 것, 살아있는 것**과만 관계를 맺는다. 지성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굳어있는 것과 관계를 맺는다.(FA 39, 308-309, 인용자가 강조함)³²⁾

32) “Die Gottheit aber ist wirksam *im Lebendigen*, aber nicht im Toten; sie ist *im Werden* und *sich Verwandelnden*, aber nicht im Gewordenen und Erstarrten. Deshalb hat auch die Vernunft in ihrer Tendenz zum Göttlichen es nur mit *dem Werden, Lebendigen* zu tun; der Verstand mit dem

여기에서는 원현상이 물리적이나 도덕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현상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모두 관계 맺고 있을 보편적 근원자의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앞에 인용되었던 대화와 연결시켜보면, 색채의 발생과정에서 관찰된 원현상은 보편적 근원자인 하느님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하느님은 ‘살아 있는 것’, ‘형성해가는 것’, ‘변화하는 것’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원현상은 ‘죽어 있는 것’,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굳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하느님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는 ‘살아 있는 것’, ‘형성해가는 것’, ‘변화하는 것’과만 연관된다. 경계의 필연성과 흐릿함이라는 원현상 역시 보편적 근원자인 하느님이 작용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느님의 이러한 작용방식은 인간의 도덕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다.

괴테가 ‘물리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예로, 1809년 가을 그가 『친화력』의 출간을 알리기 위해 직접 작성한 광고를 들 수 있다. 그는 이 광고에서 “하지만 도처에 오직 **하나의** 자연만 doch überall nur *eine* Natur 있을 뿐”(FA 8, 974)이라고 강조한다. 자연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괴테는 우선 “자연학에서 윤리적인 비유들이 매우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 daß man in der Naturlehre sich sehr oft ethischer Gleichnisse bedient”(FA 8, 974)을 언급한다. 이어서 그는 “도덕적인 경우에도 화학적인 비유 auch [...] in einem sittlichen Falle, eine chemische Gleichnisrede”를 사용함으로써 그 비유의 “정신적 근원으로 소급해 zu ihrem gelitigen Ursprunge zurückführen”(FA 8, 974) 보려한다고 말한다. 이 소설의 제목인 ‘선택적 친화력’이 바로 ‘도덕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화학적 비유’인 것이다. 그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적 특성인 “밝은 이성-자유의 제국 das Reich der heitern Vernunft-Freiheit”에서도 자연의 “흐릿하고 격정적인 필연성의 흔적들이 제어할 수 없게 관찰되고 있기 die Spuren trüber leidenschaftlicher Notwendigkeit sich unaufhaltssam hindurchziehen”(FA 8, 974) 때문이며, 괴테가 ‘오직 하나의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다.

‘하나의 자연’에는 물리학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연과 윤리로 대변되는 인간 사회가 모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괴테가 이 광고에서 ‘하나의 자연’을 강조한 일차적인 이유는 화학용어를 사용한 이 소설의 제목 때문이었지만, 이 글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보면 ‘하나의 자연’이라는 표현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그의 사유 전반의 근본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색채 발생과 인지의 과정에서 관찰된 물리적 원현상은 동시에 인간들 사이의 경계와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물리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에서도 경계를 어떻게 대화의 원리가 관철되는 관계로 작동하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괴테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올바르게 정돈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설비에 맞지 않는 어떤 낯선 것이 나타나자마자, 이 [낯선] 것 하나를 빠뜨리거나 고의로 잘못 배치하려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분류를 변경한다. 결합을 지향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연결을 기꺼이 해체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부정하거나 인위적으로 낡은 것과 연결할 것이다.(FA 25, 137)³³⁾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정돈하기’를 지향하는 사람과 ‘결합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동일한 과제가 주어진다. ‘새로운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 ‘새로운 것’은 항상 동시에 ‘낯선 것’이다. 익숙해서 낯설지 않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결합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새로운 대상에 대하여 모든 행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내적 구조를 확고하게 결정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지 않는 낯선 것, 즉 새로운 것은 부정해 버린다. 설혹 이 낯선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낯선 것이 지닌 새로움에 전혀 걸맞지 않는 기존의 낡은 구조에 억지로 끼워 넣는다. 이와는 달리 ‘정돈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낯선 대상의 새로움을 인정한다. 이 새로운 대상이 자신의 기존의

33) “Wer zur wahren Ordnung geneigt ist wird sobald etwas Fremdes erscheint, das in seine Einrichtung nicht paßt lieber die ganze Zusammenstellung verändern als das Eine auslassen oder wissentlich falsch stellen. Wer zum Verknüpfen geneigt ist wird seine Verbindung nicht gerne auflösen er wird etwas Neues lieber ignorieren oder künstlich mit dem Alten verbinden.”

구조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새로운 대상을 위한 설비가 자신의 내면에 새롭게 형성되게 한다.

‘정돈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의 이러한 방법은 앞에서 다루었던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괴테의 견해와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낯선 것이 그것을 인지하는 주체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결합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처럼 새로운 것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거나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바꿔 받아들이한다면, 이는 객체의 새로움을 인지할 수 있는 기관을 형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괴테가 보편적 근원자인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곳으로 언급한 살아있음, 형성, 변화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정돈하기’를 통해 내면의 설비를 바뀌어가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괴테가 원현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보편적 근원자가 작용하는 살아있음이며,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대화로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괴테에게 있어서 **대화**는 서로의 새로움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되는 행위이며, 동시에 대상의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 새로움이 존재하는 한, 대화는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항상 ‘비로소 새롭게’ 생성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갈등양상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그릇된 반응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문화에서 발견되는 낯선 것들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기보다는 낯선 것이기에 배제하거나 자신의 문화 기준에 맞춰 이리저리 재단해 버린 결과가 낯선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폭력적 태도를 통해 그만큼 경계를 높고 공고히 만들고, 경계 넘기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려 한다. 물론 이러한 폭력적 시도는 경계를 대화를 위한 관계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색채의 발생과 인지 과정에서 괴테가 관찰한 경계와 흐릿함의 원현상은,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나 낯선 문화를 대하는 방식에서 **경계를 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관계로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괴테, 요한 볼프강 폰(2018): 색채론(장희창 외 옮김). 민음사.
FA = Goethe, Johann Wolfgang(1985ff.): Sämtliche Werke. Briefe, Tagebücher und Gespräche. 40 Bde. Frankfurt a. M.

2차 문헌

- 고규영(외)(2020): 코로나 사이언스. 연구 현장의 최전선에서 써 내려간 과학자들의 코로나19 분석 보고서.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획. 도서출판 동아시아.
- 김재인(2020): 뉴노멀의 철학. 대전환의 시대를 구축할 사상적 토대. 도서출판 동아시아.
- 김환석(2010): ‘두 문화’와 ANT의 관계적 존재론. 실린 곳: 라투르, 브뤼노(외): 인간, 사물, 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홍성욱 엮음), (주)도서출판 이음, 305-330.
- 라투르, 브뤼노(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홍철기 옮김), 갈무리.
- 라투르, 브뤼노(2010):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관하여 - 약간의 해명,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실린 곳: 라투르, 브뤼노(외): 인간, 사물, 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홍성욱 엮음), (주)도서출판 이음, 95-124.
- 주일선(2012): 관계와 시간 - 괴테의 자연이해. 독일언어문학 56, 205-226.
- 주일선(2014): 관계가 행위자다 - 현대성 비판: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과 괴테. 독일어문학 64, 365-393.
- 최재천(외)(2020): 코로나 사피엔스. 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 대표 석학 6인이 신인류의 미래를 말한다. (주)인플루엔셜.
- 홍성욱(2010a):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실린 곳: 라투르, 브뤼노(외): 인간, 사물, 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홍성욱 엮음), (주)도서출판 이음, 15-35.

- 홍성욱(2010b): 인간과 기계에 대한 ‘발칙한’ 생각: ANT의 기술론. 실린 곳: 라투르, 브뤼노(외): 인간, 사물, 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홍성욱 엮음), (주)도서출판 이음, 125-154.
- Bican, Bianca/Wenzel, Manfred(2012): Art. Rezeptions- und Wirkungsgeschichte. In: Goethe-Handbuch. Supplemente, hrsg. v. Manfred Wenzel, Bd. 2, Naturwissenschaften, Stuttgart/Weimar, 251-289.
- Böhme, Gernot(1980): Ist Goethes Farbenlehre Wissenschaft? In: Ders., Alternative der Wissenschaft, Frankfurt/M., 123-153.
- Heisenberg, Werner(1941/1987): Die Goethesche und die Newtonsche Farbenlehre im Lichte der modernen Physik. In: Hans Mayer (Hrsg.), Goethe im zwanzigsten Jahrhundert. Spiegelungen und Deutungen, Frankfurt/M., 681-703.
- Höpfner, Felix(1990): Wissenschaft wider die Zeit. Goethes Farbenlehre aus rezeptionsgeschichtlicher Sicht, Heidelberg.
- Latour, Bruno(2020): This ist a global catastrophe that has come from within. I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n/06/bruno-latour-corona-virus-gaia-hypothesis-climate-crisis>.
- Prigogine, Ilya/Stengers, Isabelle(1981): Dialog mit der Natur. Neue Wege naturwissenschaftlichen Denkens, München.
- Schimma, Sabine(2014): Blickbildungen. Ästhetik und Experiment in Goethes Farbstudien, Köln, Weimar, Wien.
- Schmidt, Jochen(1998): Art. Natur. In: Goethe-Handbuch, hrsg. v. Hans-Dietrich Dahnke und Regine Otto, Bd. 4/27, Stuttgart/Weimar, 755-776.
- Wenzel, Manfred(2012a): Art. Natur. In: Goethe-Handbuch. Supplemente, hrsg. v. Manfred Wenzel, Bd. 2, Naturwissenschaften, Stuttgart/Weimar, 557-559.
- Wenzel, Manfred(2012b): Art. Prismenaperçu. In: Goethe-Handbuch. Supplemente, hrsg. v. Manfred Wenzel, Bd. 2, Naturwissenschaften, Stuttgart/Weimar, 605-606.
- Wenzel, Manfred(2012c): Art. Physische Farben. In: Goethe-Handbuch.

Supplemente, hrsg. v. Manfred Wenzel, Bd. 2, Naturwissenschaften, Stuttgart/Weimar, 593.

Wenzel, Manfred(2012d): Art. Urphänomen. In: Goethe-Handbuch. Supplemente, hrsg. v. Manfred Wenzel, Bd. 2, Naturwissenschaften, Stuttgart/Weimar, 680-681.

■ Zusammenfassung

Beziehungen: Grenze und Überschreitung der Grenze - Goethes *Zur Farbenlehre* in der pandemischen Zeit

Joo, Ill-Sun (Yonsei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Goethes Hauptwerk *Zur Farbenlehre* im Hinblick auf den jetzigen pandemischen Zustand gelesen mit dem Ziel, Bedeutungen der Grenze zwischen Licht und Finsternis bei der Farbenentstehung zu untersuchen. Zunächst geht es um das 'Prismenaperçu'. Der Begriff bezeichnet die Erkenntnis, dass eine Grenze notwendig sei, um Farben hervorzubringen, und die Newtonische Lehre über die Darstellung der Farben aus dem weißen Lichtstrahl somit falsch sei. In der *Farbenlehre* entwickelt Goethe dieses Konzept von der Entstehung der Farben weiter: Die Farbenentstehung wird in ihrem Zusammenwirken von Licht, Finsternis und Trübe in den Rang eines Urphänomens erhoben. Ihm zufolge kommt alles in der ganzen sinnlichen Welt auf das Verhältnis der Gegenstände untereinander an, vorzüglich jedoch auf das Verhältnis des Menschen zu den übrigen Gegenständen. In Goethes *Farbenlehre* geht es insbesondere darum, dass diese doppelten Beziehungen verstanden werden. Dies weist darauf hin, dass eine Beziehung für Goethe die Simultanität der Grenze und deren Überschreitung bedeutet, und diese Verständnisweise von der Beziehung soll sowohl auf der Suche nach einer gesunden Beziehung zwischen Natur und Menschen, als auch zwischen den Kulturen Anwendung finden.

핵심어: 관계, 경계 넘기, 관계, 색채론, 팬데믹

Stichwörter: Grenze, Grenzenüberschreitung, Beziehung, Farbenlehre, Pandemie

<논문투고일: 2021.08.15. 논문심사일: 2021.09.06. 게재확정일: 2021.09.09.>